

野, 황교안청문회 연기 요청... '보이콧' 언급

“자료제출 부실...이대론 안돼”
與 “있을 수 없는 일” 일축
오늘부터 6월국회 격랑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새누리당에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동의 여파가 워낙 강한 와중에 청문회 일정 연기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경우, 일평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며 “오늘 저녁이라도 (변호사 수임사건 관련)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일정 연기와 보이콧 여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 원내대표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인 오늘까지도 위원회 의결 자료 39건 가운데 24건, 61.6%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대로는 청문회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자료 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 청문회 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대선회의에서 김광진 의원(오른쪽)이 황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현재 전관예우 논란 검증에 관한 변호사 시절 수입자료,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 간 금전거래 내역 및 증빙자료, 병역면제 의혹 검증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직무 검증을 위한 검사제직 시 관공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등을 사생활 침해나 영업상 비밀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8일부터 한 달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논란 등 굵직한 현

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강대강(強)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한편 국가위기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메르스 사태 관련한 4+4 회동

에서 위험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큰 틀에서 국회의 사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은 강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법 재개정을 비롯해 ‘강제성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개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임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도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희호 “黨이 갈라지는 일 없어야”

동교동 찾은 文 대표에 당부



뜻을 잘 받들겠다”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다. 계속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도 문 대표의 재차 “송구스럽다”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당이 하나가 돼서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여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 사저에서 문 대표의 예방을 받고 “모두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인데, 내편 나편이 없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여사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단결해야 한다. 모든 사합의 힘을 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 말을 듣고서 “특히 제가 우리 당을 좀 잘 단합시켜야 하는데 지난번 재보선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하고, 그 바람에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사님께 제일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도 정권교체를 위해 꼭 통합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여사의 방북이 6·15 공동선언 기념 일 이전에는 사실상 힘들어질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어 여사님의 방북이 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여사는 “(북측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거절할 데 이어 본인의 방북시기도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는 말을 했다고 유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희호 여사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野, 기득권 나눠먹기 안주”

靑 일방통행도 비판...박지원 의원 만나 야권재편 등 의논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책임질 개혁정치의 3가지 정의로 ▲모든 사회 기득권과 싸우는 정치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는 정치 ▲남북화해를 위한 정치를 제시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5일 4개 진보세력의 통합 선언에 대해 “건전한 진보세력과의 연대나 협력 문제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 성장과 비전’ 토론회에서 “참여할 생각은 없지만 그 세력들이 좋은 진보세력으로 잘 기능·발전하고 역할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영역을 대체할 세력이든 뭐든 그 세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제 주된 관심사”라며 “그 세력이 잘 만들어지면 진보정당과의 연대와 협력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도 무리한 청와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패배에 길들여진 야당은 야당다움을 잃고 기득권 나눠먹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

그는 이어 “결국 정치혁신이 문제”라며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불신과 불안, ‘2불’이라고 할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출발점은 정치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전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을 만났다고 밝히고, “서로서로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 재편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고 합의해서 행동하기 어려운 처지”라면서도 “심층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정치혁신이 문제”라며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불신과 불안, ‘2불’이라고 할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출발점은 정치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도 무리한 청와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패배에 길들여진 야당은 야당다움을 잃고 기득권 나눠먹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

천 의원은 “정치혁신이 문제”라며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불신과 불안, ‘2불’이라고 할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출발점은 정치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도 무리한 청와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패배에 길들여진 야당은 야당다움을 잃고 기득권 나눠먹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

천 의원은 “정치혁신이 문제”라며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불신과 불안, ‘2불’이라고 할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출발점은 정치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도 무리한 청와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패배에 길들여진 야당은 야당다움을 잃고 기득권 나눠먹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

천 의원은 “정치혁신이 문제”라며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불신과 불안, ‘2불’이라고 할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출발점은 정치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자 “靑문화전당, 지속 가능성이 성공 관건” 새정치 혁신위원 기초단체장뚝 3명 후보 추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광주에 문을 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얼마만큼 지속가능하냐의 문제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되는 만큼 기본 인력을 채우고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규정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해 기도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며 “이제 광주시가 나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화수도를 만드는 데 광주시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문화재단이 광주 문화시점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는 전당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더라도 지속가능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에 평판이 좋지 않았던 포피두센터도 10여 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11월 25일 전당이 개관을 한다는데 처음부터 모든 콘텐츠를 채우고 인력도 뽑으려 하면 안된다”며 “한꺼번에 채워 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만큼 기본 인력을 채우고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규정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해 기도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며 “이제 광주시가 나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화수도를 만드는 데 광주시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문화재단이 광주 문화시점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꺼번에 채워 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만큼 기본 인력을 채우고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규정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해 기도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며 “이제 광주시가 나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화수도를 만드는 데 광주시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문화재단이 광주 문화시점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등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6일 혁신위원 후보로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들 3명 가운데 1명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박우섭 구청장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출신으로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여의도에서 벗어난 생활정치 실현’을 외치며 최고위원에 도전한 바 있다.

김수영 구청장과 홍미영 구청장은 새정

치연합 소속 8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두 명 뿐인 여성 단체장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당직자 등 당 내부의 4개 그룹에 복수의 혁신위원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함께 희생하면서 당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혁신위원으로 추천받은 분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해 혁신위원 후보들을 만나고 혁신의 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8일 혁신위원 인선 상황을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영 구청장과 홍미영 구청장은 새정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광주금연지원센터 계약직원 채용 공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금연지원센터에서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근무시간 | 계약기간 | 지원자격 |
|-------|------|--------|-------------------------------------|--|
| 금연상담사 | 0명 | 주 40시간 | '15.12.31까지 (근무평가에 따라 2년 이내 재계약 가능) | - 간호사 면허를 소지자 또는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자 또는 - 임상심리사 자격을 소지자(응급 이상) 또는 - 보건학·보건교육학·심리학·상담학을 전공하였거나 대학원 과정 보건학을 전공한 자 |
| 연구행정 | 0명 | 주 40시간 | '15.12.31까지 (근무평가에 따라 2년 이내 재계약 가능) | -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
| 운전기사 | 0명 | 주 40시간 | '15.12.31까지 (근무평가에 따라 2년 이내 재계약 가능) | - 1종대형 운전면허를 소지자로서 대졸이상 경력 1년 이상인 자 ※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업무 공동진행 |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 병원 인사규정 제16조의 경력사유가 없는 자 ※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근무가용자
※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단,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전산 및 관련 자격을 취득자,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자, 금연관련 연구 및 사업 경험자, 금연치료전문가(GTTS)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2. 보수 및 복리후생
가. 약 200만원(월, 기타 상여금 별도지급 없음)
나. 4대보험, 전보비감면, 주휴연, 연차, 퇴직금(1년 만근시) 등 혜택부여
다. 합격자 신분: 광주금연지원센터에 소속되며 기본운영체제는 광주금연지원센터 자체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

3. 모집방법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수험표, 접수증(사전부착, 홈페이지에서 다운) 각 1부
2)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평균평점 및 전학년 석차 기재) 원본 1부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제출
3)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6)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 1부
7)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9)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접수기간: 2015년 6월 3일(수) ~ 2015년 6월 8일(월) 11:00까지
다. 접수처: 조선대학교병원 총무팀 (☎062-220-3580) - 본인 방문접수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까지
- 점심시간(12:00 ~ 13:30)에는 접수 받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병원 홈페이지(https://hosp.chosun.ac.kr/) 채용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문의사항은 조선대학교병원 총무팀(062-220-35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금연지원센터

2015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일관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면접시험 2015. 6. 26.(금) 10:00~
전형일시 2015. 6. 26.(금) 10:00~
합격자 발표 2015. 7. 23.(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전환환경공학/식품·차산공학/지역활성화공학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